



위성곤 제40대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 위 지사는 이날 취임식에서 도청 방향을 밝히며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강희만기자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 출범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만들겠다”

어제 도청 탐라홀서 제40대 제주도지사 취임식
제2공항, 도민 신뢰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 강조
경제 성장 위해 재생에너지·AI 산업 육성 등 약속

민선 9기 제주도정을 이끌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했다. 위성곤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제2공항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AI(인공지능) 육성’, ‘책임 행정 실현’ 등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사무인수서에 서명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탐라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오늘 저는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달라는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태환 전 지사

와 전 도의회 의장단, 김성범 국회 의원,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주요 전현직 기관장, 전·현직 도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9기 도정은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비전으로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제시했다.

위 지사는 “행정은 앞에서 끌고 가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여야 한다. 늘 현장에 가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다”며 “제2공항 문제는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 지사는 제주의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AI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위 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의 비전은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로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나는 섬으로 만들겠다”며 전기차 V2G(양방향 충전), 재생에너지 기반 숙박시설, AI 여행 설계, 차량 자율주행 등의 미래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도 함께 내놔다.

위 지사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부만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 운영 방향으로는 현장·신

속·책임 행정 세 축을 제시하며 “공직자가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 지사는 취임식 직후 재난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상황 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위 지사는 위험 징후 확인 시 신속한 출입통제·주민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에 두라고 지시했다. 우선대피대상자 관리와 주민대피지원단 운영에도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위 지사는 호우 대처상황 보고회의를 마친 뒤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가졌으며 도청 구내식당에서 정원경찰·미화원 등과 점심을 함께 했다.

오후에는 서귀포로 이동해 하우스 온주밀감 수확 현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13대 제주도의회 어제 개원 전반기 의장에 송영훈 의원 선출

부의장에 김승준·김항국
6일까지 8개 상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면·주자면)과 국민의힘 김항국 의원(용담1동·2동)이 선출됐다.

1일 개원한 제13대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 선출은 전체 45명 의원이 추천하는 의장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송 의원은 전체 45표 중 40표를 득표하며 의장으로 선출됐다.

송영훈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금 제주는 안팎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장기화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 곳곳에 스며든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최우선 과제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을 비



전반기 도의장으로 선출된 송영훈 의원.

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씩을 가져가는 대신 우선순위에 따라 밀린 상임위에 의원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으로 원구성 합의가 진행된 만큼 오는 6일까지 의회운영위원장 등 8개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송 의장은 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소범기자

제주시,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7월 본격 시행

제주시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 지역특화서비스를 마련,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지역특화서비스를 7월 중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의료·요양 통합돌

봄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상자 601명을 발굴,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등 서비스 1551건을 연계·지원하는 등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병행해 추진되는 지역특화 서비스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금탁기자

폐업 늘고 빚 상환도 막막한 소상공인들... 5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민선9기, 지방시대의 새 장을 엽니다.

16개 시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부산광역시
전재수 시장

대구광역시
추경호 시장

인천광역시
박찬대 시장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울산광역시
김상욱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시장

경기도
추미애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우상호 도지사

충청북도
신용한 도지사

충청남도
박수현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도지사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도지사